

방송·영화·연극 넘나들며 사랑받은 '명품조연'

하늘로 떠난 30년 차 배우 故 전미선 영화 '나랏말싸미' 개봉 앞두고 '비보'



29일 전주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전미선은 방송과 영화, 연극 무대를 오가며 활발하게 활동하던 올해 30년 차 중견 배우다.

단아한 이미지와 뛰어난 연기력으로 명품배우로 불리며 시청자와 관객의 사랑을 받았다. 1970년생으로 만 49세인 그는 안양예고(연극영화과)와 서울예대 방송연예과를 졸업했다. 고3 때인 1989년 KBS 드라마 '토지'로 데뷔한 뒤 '남남', '전원일기' 등으로 얼굴을 알렸다.

1990년 영화 '그대 가끔 하늘을 보자'로 스크린에도 데뷔해 '우리 시대의 사랑', '젊은 남자', '8월의 크리스마스'로 관객의 눈도장을 찍었다. 1990년대 중반까지 각종 특집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며 활발하게 활동한 그는 슬럼프를 겪기도 했다.

전미선은 2011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18살 어린 나이에 데뷔해 많은 상처를 받고, 연기에 한계도 느꼈다"고 떠올렸다. 1990년대 후반부터 패션디자이너, 미술 등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 했지만, 성과가 좋지는 않았다. 당시 연기를 아예 그만둘까 생각했던 전미선은 김대승 감독의 영화 '번지 점프를 하다' (2000)를 만나 다시 연기에 눈을 뗐다.

전미선은 이후 영화 '살인의 추억', 드라마 '왕건'과 '인어아가씨' 등을 거치면서 "나는 연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느꼈다고 했다.

연기자의 길로 방향을 확고히 잡은 전미선은 '황진이', '제빵왕 김탁구', '오작교 형제들', '해를 품은 달', '응답하라 1988', '육룡이 나르샤' 등 수많은 드라마에서 폭넓은 연기를 선보였다. 그중 최고 시청률 49.3%까지 치솟았던 KBS 2TV '제빵왕 김탁구' (2010)에서 주인공 탁구의 친모 역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

출연하는 드라마마다 히트하자 그는 '시청률 보증 수표'로 통하기도 했다. KBS 연기대상 조연상(2006), 제34회 황금촬영상 최우수 여우조연상(2014), SBS 연기대상 일일극 부문 여자 특촬연기상(2015)을 받으며 연기력도 인정받았다.

영화에서도 '마더', '수상한 이웃들', '숨바꼭질' 등에 모습을 내밀며 주·조연으로서 남다른 존재감을 뽐냈다.

그는 연극무대로도 활동 영역을 넓혔다. 국민배우 강부자와 호흡을 맞춘 연극 '친정엄마와 2박 3일'은 2009년 1월 초연돼 장기간 공연 중이다. 말기 암 환자인 딸이 생의 마지막 2박 3일을 친정엄마와 함께 보낸다는 내용으로, 관객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며 인기를 끌었다. 그동안 지방 순회공연을 이어온 그는 이날부터 이틀간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이 연극을 공연할 예정이었다.

전미선은 다음 달 24일 영화 '나랏말싸미' 개봉도 앞뒀다. 불과 나흘 전인 25일 열린 제작보고회에 송강호 등과 함께 참석했던 터라 그의 비보는 팬들에게 더욱 충격을 줬다.

전미선은 이 작품에서 세종의 부인 소헌왕후 역을 맡아 기존

사극 속에서 그려진 여성상과는 다른 '대장부'로서 모습을 보여 줄 예정이었다. 전미선은 당시 "제가 하고 싶었던 말, 갖고 싶었던 성품을 소헌왕후가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전미선은 2006년 12월 한살 연상의 영화 촬영감독 박상훈 씨와 결혼했다. 그가 스크린 데뷔 15년 만에 처음 주연한 영화 '연애' (2005)에서 배우와 촬영감독으로 만나 2년간 교제 끝에 백 년기약을 맺었다. 올 초 SBS '영재발굴단'에 출연한 전미선은 다양한 분야에 재능을 보이는 아들을 언급하며 자랑스러워하기도 했다.

전미선은 지난해 9월에는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다룬 영화 '봄이 가도'에 출연했다.

그는 당시 시사회 이후 간담회에서 "한 아이를 둔 엄마로, 그들과 같은 입장에 있다면 어떻게 하는 마음으로 연기했다"면서 "영화를 보면서 제가 더 큰 위로를 받았다. 저렇게 각자 최선을 다해 살면서 이겨내려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앉아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전미선의 빈소는 30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빈소는 장례식장 지하 1층 1호실에 차려졌으며 유족 뜻에 따라 관객자 외에는 지하 진입로부터 출입이 철저히 통제됐다. 유족 측은 고인의 어린 아들을 생각해 공동취재단의 영정 사진이나 안내판 촬영 등도 삼가달라는 뜻을 전했다. 장례식장 로비에는 '지하 1층 빈소의 취재는 정중히 사양합니다'라고 적힌 안내판도 설치됐다.

유족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조문객을 맞았다. 상주이자 남편인 영화촬영 감독 박상훈 씨와 아들, 어머니, 오빠 등이 빈소를 지키고 있다. 복도를 통해 유족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첫 조문객은 배우 송강호였다. 고인의 유작이 된 영화 '나랏말싸미'에서 호흡을 맞춘 그는 검은 정장과 넥타이 차림에 침뿜은 표정으로 빈소에 들어서 점심 내내 머물렀다. 이어 2003년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 인연을 맺은 봉준호 감독도 빈소에 도착해 비탄에 빠진 유족을 위로했다.

이밖에 배우 정유미 등 생전 고인과 작품 등으로 작·간접적인 연을 맺은 사람들이 빈소가 열리자마자 한담에 열려왔다. 점심 이후부터 본격적인 조문 행렬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영화진흥위원회와 '나랏말싸미' 관계자들, 고인과 친분이 있었던 매니저먼트사, 송강호·박해일 등 배우들의 조화도 속속 도착했다.

빈소가 차려지기 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연에게 추모도 이어졌다. 배우 윤세아는 "편히 쉬어요, 예쁜 사람"이라고 썼다. 이밖에 유서진, 권세성, 한지일 등이 고인을 기리는 글을 남겼다. 소속사 측은 전미선이 평소 우울증 치료를 받아 왔다고 밝혔다. 발인은 7월 2일 오전 5시 30분이며, 장지는 미정이다. /연합뉴스

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관심 ↑ 실시간 시청률 27.03% 달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판문점 회동 생중계 실시간 시청률이 27%를 넘어섰다.

30일 실시간 시청률조사회사 ATAM에 따르면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4사, 보도채널 2사가 이날 오후 3시 46분부터 3시 54분까지 생중계한 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실시간 시청률 총합은 27.03%로 집계됐다.

채널별로는 KBS 1TV 6.35%, SBS TV 6.11%, MBC TV 4.32%, YTN 2.63%, JTBC 2.53%, TV조선 1.76%, 채널A 1.53%, 연합뉴스TV 1.44%, MBN 0.36% 순이었다. 앞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실시간 시청률 총합은 20.88%였다. ATAM은 서울수도권 700가구를 대상으로 시청률을 집계한다.

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3판문점 남북 자유의집에서 단독 회동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만나 악수한 뒤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한 후 자유의집으로 이동했다. /연합뉴스

BTS '상남자' 뮤직비디오 3억뷰 돌파

그룹 방탄소년단의 '상남자'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3억뷰를 돌파했다.

30일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2014년 이들의 두 번째 미니앨범 '스쿨 러브 어페어' (Skool Luv Affair) 타이틀곡 '상남자' 뮤직비디오는 이날 오전 4시 23분께 유튜브 조회수 3억 건을 넘겼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DNA', '불타오르네', '페이크 러브' (FAKE LOVE), '마이크 드롭' (MIC Drop) 리믹스, '쩨어', '피 땀 눈물', '아이돌' (IDOL), '세이브 미' (Save ME), '낫 투데이' (Not Today), '작은 것들을 위한 시' (Boy With Luv)에 이어 '상남자'까지 3억뷰 돌파 뮤직비디오 11편을 보유하게 됐다.

이는 한국 가수 최다 3억뷰 뮤직비디오 돌파 기록으로, 이들은 지난 5월 '작은 것들을 위한 시' (Boy With Luv) 이후 이 부문 자체 기록을 경신했다.

'상남자'는 강렬한 록 사운드와 거친 합창 드림이 결합한 곡이다. 내 마음을 몰라줘도 포기하지 않고 날 향해 끝까지 달려가겠다는 뜻뜻한 10대 소년의 저돌적인 고백이 담겼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왕왕님 보우하사(재)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35 수상한 장모
9	30 KBS 뉴스	00 여름아 부탁해(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검법남녀 시즌2(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다큐 공감(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퍼퓸(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검법남녀 시즌2(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집 정재영의 파워인터뷰
1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5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2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중계방송 정의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00 정의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
3	10 이웃집 찰스(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꼬마돌도 도도 2 55 뽀뽀뽀 모두야 놀자	10 맨인블랙박스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5 뽀뽀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 55 아이돌 타임 프리파라	00 월드컵스튜디오 그곳에 가면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영화가 좋다(재)	25 빠샤 매거진 55 오매 전라도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50 왕왕님 보우하사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7	00 KBS 뉴스 7 40 우리말 겨루기	50 태양의 계절	30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품지락
8	30 여름아 부탁해	30 글로벌24 55 옥탑방의 문제아들	55 검법남녀 시즌2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10	00 가요무대	00 퍼퓸	05 스트레이트	00 홈커밍 특집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1	00 오늘밤 김제동 40 저널리즘 토크쇼 J(재)	10 안녕하세요	10 광주MBC 드라마 특선 국민의 일꾼	
12	35 KBS 뉴스 45 이웃집 찰스(재)	35 비바 K리그	05 스포츠 다이어리 20 2019 스포츠클라이밍 국가대표 선발전	10 나이트 라인 40 앙코르 고향건물 스페셜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30 한국기행(재)	17:00 EBS 뉴스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명탐정 피트
06:00 한국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페파 피그(재)
06: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1~5
07:00 로보가 폴리	12:10 극한직업 스페셜	19:00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07:15 꼬마버스 타요	13:00 다큐 오늘	19:30 생방송 판다다
07:30 뽀뽀뽀 뽀로로	13:10 최고의 요리비결	20:00 갤럭시 프로젝트
07:45 페파 피그	13:40 기획특강-지식의 기쁨	20:30 아기 동물 귀여워
08:00 똥덩이 유치원1~2	14:30 꼬마버스 타요(재)	20:40 세계테마기행
08:30 몬카트	15:00 출동! 피자마 삼총사	〈내 인생의 오아시스 중앙아시아 1부 파미르 가는 길〉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30 뽀뽀뽀 뽀로로(재)	21:30 한국기행
09:00 마사와 곰	15:45 출동! 슈퍼왕스(재)	〈시골달인 1부 은도의 달인을 찾아서〉
09:15 출동! 슈퍼왕스	16:00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21:50 EBS 다큐프라임
09:30 원더볼스	16:15 세미와 매직큐브	22:45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6:30 똥덩이 유치원1~2(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p> 36년생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이성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48년생 뜻밖의 인연이라면 예의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60년생 필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72년생 혁신적으로 궤도 수정을 해야 할 시기이다. 84년생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48, 99</p> <p>子</p>	<p> 42년생 무리하여서는 절대로 아니 되느니라. 54년생 중차대한 것을 이행하게 된다. 66년생 대소가 아니라 핵심 유무의 문제이다. 78년생 끝도 없이 계속 되면서 피로감을 더 할 수 있다. 90년생 어떠한 말을 하든지 간에 차분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80, 39</p> <p>午</p>
<p> 37년생 원래 작정대로만 행하면 문제가 없다. 49년생 당해 사항은 본격적으로 진행 될 것이다. 61년생 활용만 잘 한다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73년생 확인한 후에 결정해야 할 것이다. 85년생 평상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무탈하리라. 행운의 숫자 : 72, 47</p> <p>丑</p>	<p> 43년생 결과는 마찬가지다. 55년생 이미 따 놓은 당상이니 허둥에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 67년생 기운이 상승세를 타면서 입지가 굳어지는 성국이다. 79년생 전적인 신뢰는 소모적인 결과를 부른다. 91년생 크기로 보지 말고 밀도를 살펴야 할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77, 54</p> <p>未</p>
<p> 38년생 실제적인 관계여야만이 의미가 있다. 50년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성국이라 할 것이다. 62년생 헤쳐 나갈 수 있는 기상천외한 묘안이 보인다. 74년생 아차 하는 사이에 혼란의 소용돌이에 서 있을 수다. 86년생 유지하는 것도 괜찮다. 행운의 숫자 : 63, 61</p> <p>寅</p>	<p> 44년생 조건이 양호해지면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56년생 대처해 나간다면 늦게나마 가닥을 잡으리라. 68년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부심하게 된다. 80년생 맹정을 벗어날기 위한 특별한 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92년생 중심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81, 17</p> <p>申</p>
<p> 39년생 변화의 폭이 크니 참으로 예상하기 힘들다. 51년생 전반적으로 대동소이하다. 63년생 만 가지 일이 뜻과 같이 되는 순조로움이 보인다. 75년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기꺼이 포용하자. 87년생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행운이 따른다. 행운의 숫자 : 97, 26</p> <p>卯</p>	<p> 45년생 주체적으로 고려한 후에 과단하라. 57년생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곤혹스럽게 할 수다. 69년생 체계적인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낫다. 81년생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긴다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좋다. 93년생 단도직입적으로 행하라. 행운의 숫자 : 73, 59</p> <p>酉</p>
<p> 40년생 여러 사람과의 복잡한 관계에 놓인다. 52년생 떠나려는 이를 붙잡지 마라. 64년생 어떠한 시작으로 바라 보느냐에 따라 전망지치가 되리라. 76년생 대인 관계가 원만해지면 양호한 결과를 낳는다. 88년생 해 목은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91, 37</p> <p>辰</p>	<p> 34년생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원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6년생 즉시 조처했을 때에 부작용을 줄인다. 58년생 진정한 가치를 따져볼 일이다. 70년생 하자가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 82년생 복록과 악재가 섞여 있어서 종잡을 수가 없다. 행운의 숫자 : 44, 27</p> <p>戌</p>
<p> 41년생 부수적인 것은 차치하고 핵심적 대상에 집중하라. 53년생 넘치는 것 보다는 부족한 듯함이 결과적으로 낫겠다. 65년생 확실시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한다. 77년생 누적된 모순이 병폐로 드러나리라. 89년생 변동하지 말고 관망하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08, 21</p> <p>巳</p>	<p> 35년생 말로 표현하지 않은 숨은 뜻을 찾아서 읽을 수 있어야겠다. 47년생 전방위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59년생 시비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71년생 예봉을 피하는 것이 적절하다. 83년생 신중하지 않으면 손재수가 생길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6, 04</p> <p>亥</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사랑" ☎010-9790-8237